

평창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 채택

의안 번호	166
----------	-----

발의연월일 : 2019년 8월 20일

발 의 자 : 박찬원 의원

찬 성 자 : 장문혁, 이주웅,

지광천, 심현정,

전수일, 이명순 의원

1. 제안이유

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동해안~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평창군의회 의 입장을 의회 의결을 얻어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하여 동해안~신가평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나. 평창군은 5개 읍·면 15개리에 걸쳐 송전철탑 78기가 건설될 예정으로 군에는 이미 앞서 대화~봉평을 거쳐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있음

다. 하지만 앞서 설치된 송전선로와 마찬가지로 한국전력공사는 이해 당사자와 미진한 설득과 서투른 행정처리로 지역 주민 간 불신이 조장되고 있음

라. 이에, 대화와 협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송전선로 건설은 지역 주민의 불만과 저항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며,

마.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됨

평창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

(500kV HVDC 동해안~ 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한국전력공사는 동해안 원자력발전소 벨트에서 생산하는 초고압 전력의 안정적인 수도권 송전을 위해 평창을 관통하는 선로길이 220km, 송전철탑 440기에 이르는 ‘500kV HVDC(고전압직류송전) 동해안~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평창군은 미탄, 평창, 방림, 대화 봉평등 5개읍면 15개리에 걸쳐 송전철탑 78기가 건설될 예정에 있다. 우리군에는 이미 20여년전 대화, 봉평을 거쳐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초고압 765kV 규모의 송전선로가 설치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전측의 설익은 당사자 설득과 서투른 행정 처리로 주민 상호간의 불신이 조장되어 커다란 내홍을 치른바 있다. 불과 20여년전의 아픔을 주민들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한전측은 또다시 입지 선정과정에서 최대의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에 대한 구체적 조치없이 송전탑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이 최대자원인 평창군으로서는 송전선로 개설로 인하여 유무형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국가 기반사업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그동안 할말을 못하고 지금까지 지켜보고만 왔다.

하지만 이번 동해안 ~ 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전의 막무가내식 송전탑 건설은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저항을 불러올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은 주민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주민과 함께 입지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한전측의 획기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온전히 한전측에 있음을 엄숙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9. 08. .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